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②

의상대(義湘臺) 현판의 비밀



의상대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동해안에 있는 정자로, 강원도무형문화재 제48호이다. 사진은 의상대 현판으로 김돈희 선생이 쓴 것으로 추측된다.

의상대(義湘臺)는 의상 스님이 중국 당나라에서 돌아와 낙산사를 지을 때 산세를 살핀 곳으로 의상 스님의 좌선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낙산사가 있는 오봉산을 등지고 서 있을 때 의상대는 왼쪽에, 망월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1925년 당시 낙산사 주지였던 김만용(金晩翁) 스님이 현재 의상대가 있는 곳에 정자를 새로 지었다. 정자를 지을 당시인 6월, 들보로 쓸 굵은 나무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참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대 위에 있던 소나무 한 그루가 넘어

졌고, 스님은 그 소나무로 들보를 만들어 육각형의 정자를 완성했다. 이러한 의상대는 주위 경관이 매우

응혼하고 남성미 넘치는 예서체

최초의 다실 현판 쓴 김돈희 작

아름다워 예로부터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꼽히면서 시인 묵객이 즐겨 찾은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낙산사 의상대라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으리라 본다. 처음 낙산사에 가서 의상대 현판의 응혼하고 남성미 넘치는 예서(隸書)를 보니 신심이 절로 났다.

그런데 현판을 자세히 보니, 글을 쓴 작가의 관지(款識)가 훼손돼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스케일이 크고, 당당하고 시원한 스타일의 황정건(黃庭堅) 서체를 닮은 현판의 예서는 당대 명필이었던 엄재(念齋) 송태회(宋泰會: 1872~1941) 선생과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 1871~1937) 선생이 가장 많이 쓰던 서체와 비슷했다.

송태회 선생은 의상대가 세워진 1925년 당시 순천 송광사 현판, 광주 원각사 극락전 현판을 쓴 인물로, 호남화단의 마지막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로 불렸다.

김돈희 선생은 강릉 선교장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실(茶室)인 활재정(活來亭)의 현판을 쓴 명필이었다.

두 명필 중 누가 쓴 것인지 궁금해 하던 중

다른 사찰현판 자료를 보다가 낙산사 의상대 현판을 쓴 인물은 성당 김돈희 선생이라는 자료를 접하게 됐다. 그 후 의상대를 보살할 때 떼어놓은 현판을 꼼꼼히 살펴보니, 김돈희 선생의 호(號)가 음각으로 약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낙산사 보타전의 현판을 쓴 여초(如初) 김응현(金膺顯: 1927~2007) 선생은 김돈희 선생이 일제시대 중추원의 촉탁을 지내면서 행한 친일활동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후세의 누군가가 의상대의 관지를 훼손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 궁금했던 한 가지는 현판에 쓰인 의상대(義湘臺)라는 한자이다. 그 한자는 우측에서 좌로 내쉬는 숨을 뜻하는 희(義)자와, 강 이름을 뜻하는 상(湘), 높고 평평한 장소를 뜻하는 대(臺)로 적혀있다.

옛 한문자를 살펴보면, 의상 대사의 의상(義湘) 대신에 희상(義湘)을 쓴 것이 나와 두 글자가 병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돈희 선생은 왜 구대어 희(義)자를 썼을까? 그의 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파자(破字, 한자의

자획을 풀어 나누는 것)하는 방식을 이용해 의상대 세 글자를 살펴봤다.

만 약 에 상(湘)의 눈 목자

를 희(義)자에 붙이면, 희자는 저절로 태양을 뜻하는 희(曦)자의 형태가 돼, 의상대의 의미는 '태양이 물 위에 비친 모습을 보는 곳'이라는 의미로 바뀐다. 김돈희 선생의 탁월한 조형감과 학문의 깊이를 다시금 볼 수 있게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산사 의상대 현판은 공민왕이 친필로 썼다고 전하는 '임영관(臨瀛館)'이라는 판액(板額)을 제외하고, 강원도 최고의 현판글씨라고 본다.

성당 김돈희 선생의 글씨는 북송(北宋)대의 시인·서예가인 황정건(黃庭堅: 1045~1105)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황정건이 쓴 '지주명(砥柱銘)'이라는 작품은 2010년 북경의 한 옥션에서 중국 고미술품 역사상 최고 가격인 770여 만에 팔렸다.

지주(砥柱)란 황하의 역센 물길을 곳곳이 버티고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부디 의상대 현판이 세월과 풍파를 이기고 천년 만년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畫) 읽기



동행

함께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의지하고 격려하며 걷는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내 주위를 둘러봅니다.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행자는 없는지.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전시감상⑦ 조선 보우 스님의 '산거잡영(山居雜詠)'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다

山非有意容貧道(산비유의용빈도) 貧道無心假碧山(빈도무심가벽산) 我即是山山即我(아즉시산산즉아) 不知相對白雲間(부지상대백운간)

산이 뜻 있어 나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나도 생각 없이 푸른 산 빌려 살고 있네.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여서 흰 구름 사이에서 마주 대하는 줄 모르노라.

허응보우(虛應普雨: 15(?)~1565) 스님의 산에 살며 읊은 열다섯 수(首)가운데 제 8수이다. 자연은 수행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며 스님들의 삶 또한 자연 그것이다. 자연은 누구 위해 무엇을 베풀어 놓는 것이 아니요, 그 속에 사는 사람 또한 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다소 관념적일 수 있다. 스님은 이런 추상적인

경지를 마지막 구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다. 자연과 내가 서로 마주 대하고 있지만 서로 마주하고 있는 지 모르는 경지,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경지, 뜻 없이 받아들이고 무심히 머무는 경지, 그것이 곧 내가 산이요, 산이 나인 실체이다. 법과 비유를 통해 선의 묘미를 그대로 노출시킨 선시의 정행이라 할 수 있다. 스님은 "관(觀)은 소견이 멀리까지 통달하는 것

이며 원(圓)은 소견이 치우치지도 국한되지도 아니하여 널리 두루 찬 것이다. 지혜로써 비추는 것을 원관(圓觀)"이라고 했다. 망상으로 분별하면 '산이다·나다, 혹은 산이 아니다·내가 아니다'라는 현상에 집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도리로 보면 나라고 하는 육근(六根)과 산이라고 하는 육진(六塵)이 동일한 바탕임을 알게 된다. 즉 자연 그대로가 이미 불법 그 자체로 천지는 나와 한가지인 것이다.

노란 생강나무 향기가 가사에 방울지고 도량 가득 매운 개구리 소리가 봄밤을 깨우는 운문에도 매화비가 내렸다. '방안에 누워 매체를 통해 봄(春)을 감상(畵遊)' 하지만 말고 봄 길을 나서 내안에 숨어 있는 봄, 봄 속에 깃든 나를 느껴 보자. 불법은 그저 이것에 다름 아니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BESTSELLER 진입!

귀신뽕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시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입금 계좌: 023-02-500940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전화 10213667-4446, 010-3813-4443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③ 사용방법 : 진선에 1~2회 마사지 하듯 문질러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④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수행렘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심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렘플스테이

※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오신날,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 깨고 혼침 줄출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룩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 대상(누구나): 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 수행일정(예약신청)

8차: 4/ 2 ~ 4/ 3 11차: 5/14 ~ 5/15  
9차: 4/16 ~ 4/17 12차: 6/11 ~ 6/12  
10차: 5/ 7 ~ 5/ 8 13차: 6/18 ~ 6/19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렘플스테이)참조